

5/17/26

설교 제목: 요한과 예수, 그리고 완악한 세대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1 장 1-19 절

(마 11: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세례 요한(눅 7:18-35)

(마 11: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마 11: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 이까

(마 1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마 11: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 11: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마 11: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마 11: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마 11: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마 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 느니라

(마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 11: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 11: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마 11: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 11: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마 11: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인근 지역으로 전도하도록 내보내신 후 당신도 갈릴리 근처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마 11: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레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마 11: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마 11: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레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 최후의 선지자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이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 자입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레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레 요한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 비판하다가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고(1 년 정도 감금된 후 사악한 헤로디아의 요구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습니다.

세리들 및 죄인들과의 교제하신 일,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고치신 일,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등등 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선구자이자 친족인 자신이 부당하게 투옥된 일을 두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세레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지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레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행동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레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레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가타부타 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가서 그동안 당신이 행하신 일들 곧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마 1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마 11: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답변은 간결하고 권위에 찼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여부에 대해 변호하는 대신에 당신의 사역을 통해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전하라고 한 표적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출현시 있을 일들에 대해 예언한 것들입니다.

(사 35: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 35: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상의 메시아의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일 뿐 아니라 구원 사역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소경은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 참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는 의의 길로 다니지 못하는 자들, 나병 환자는 죄로 오염되어 타인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 죽은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외에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육 간에 모두 빈곤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아름다운 소식'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선지자들도 행한 적이 있는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이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다른 점은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었으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하면 세례 요한이 그런 일들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확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이 당신의 오심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과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라는 사실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드러내놓고 당신이 메시아심을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마 11: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그리고 급격한 변화와 심판을 동반한 가시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구속자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기대와는 현격히 다른 메시아 사역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결과 결국 그를 통한 구원의 혜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그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하여 줍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와 그의 사역을 믿으며 그를 참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으로 인해 참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고답적인 사고를 초월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그분의 천한 외적인 모습, 겸손한 태도에 걸려 실족함으로써 그들이 누려할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으로 말미암아 손상된 세례 요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들에게 요한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그의 외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에게 그들이 요한에게 나아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마 11: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마 11: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마 11: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관심만 가졌을 뿐, 더 깊은 영적 진리에로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들으러 나간 것이지 훌륭한 옷이나 외모를 보러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으로 띠를 한 검소한 옷차림으로 메시야의 선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선지자 보다도 나은자 곧 구약의 최후 선지자이자 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의 탁월한 선지자적 권위를 구약 성경을 빌어 인준하십니다.

(마 11: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 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니라

기록된 바는 말라기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 3:1)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지위에 대해, 그리고 그의 역할이 당신이 가르치는 천국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 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친히 메시야의 길을 준비했으며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를 만 백성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 가장 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곧 메시야의 통치가 실현되는 초자연적인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 예수 이후 모든 신약 교회 성도들은 단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는 욕에 의해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죽음과 고통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갈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의와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죄와의 단절, 격렬한 신념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확증해 주십니다.

(마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마 11: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강력한 비판과 엄격한 회개를 요구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꾸짖었기에,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에
그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즐겨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즐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는 그에게 요한의 탄생을
고하며 다음과 같이 예언했었습니다.

(눅 1: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눅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눅 1: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눅 1:19)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의 도래는 육체적 문자적인 도래라기 보단 종말론적 구원자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적 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 이후 를 통해 말씀하신 이후 400 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었으나 구약시대는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사역을 통해 구약은 최종 마감되었으며, 이제부터는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새시대가 전개될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구원사의 새 전환점을 밝힘과 동시에 이제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앞에 선언한 말씀을 확신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마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 11: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마 11: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해 할 것을 역설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멸시하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이들이 제 동무들을 불러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피리를 불었으나 춤추지 않고, 애곡하였으나 가슴을 치지 않는 무반응에 비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메세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두고 슬픔의 귀신에 사로 잡혀 어둡고 침울한 생활을 하는 자로 매도 하였으며, 요한과는 달리 세리들을 비롯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교제하는 예수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꾼으로 몰아 세우고 죄인과 한 통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고,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럴지라도 요한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바르게 살았으므로 그 두 사람의 행위는 결국에 가서 옳다 인정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 11: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마 11: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당시 세대의 반응을 통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요한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도 기쁨에도 무감각한 세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혹여 이 세대처럼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죄 앞에서 애통할 때 애통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죄 앞에 애통해 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